

# 향로산 일대 체류형 산악관광단지 2025년 국가예산 2533억원 확보

## 무주군, '향로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 지역 선정

무주군이 지난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산악 및 야간 관광의 중심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야간관광진흥도시 선정에 이어 28일에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악이라는 점,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입지, 파급효과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개발제한 구역 등이 완화된 향로산 일대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군은 향로산 자연휴양림과 산림복지지구를 연계한 체류형 산악관광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숙박과 휴식, 체험과 문화, 레포츠 등이 모두 가능한 '자연특별시 무주'의 대표 공간 탄생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은 산악관광진흥지구 전체 공간을 향로산 정상에 수려한 전망을 활용한 △별빛 쉼터(전망카페, 산정레스토랑, 별빛산장, 숲속 영화 상영, 음악회, 별자리 체험 등)와 △별빛을 활용한 숲속 모험터(인벵, 빙벽, 서바이벌장, 썰라인 등), △이름다운 금강 변을 활용한 물빛 길유터(데크, 질벽캠핑 등) 등 3개 구역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향후 지구 지정 신청 과정에서 고도화할 방침이



무주군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26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향로산은 해발 420m로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등산을 위해 즐겨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 지역 개발을 통해 향로산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악관광객을 부르는 계기도 꽤 생활 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간관광진흥도시는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야간관광의 매력을 발굴·강화하는 동시에 자생력을 갖는 도시로, 무주군은 △반딧불이 투어·체험과 △낙화봉이 상설화, △체류형 산골영양대음기(82억원) △죽산 자연재해위험개

활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반영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지역 균형발전 기틀 마련

장수군(군수 최훈식(사진))이 정부의 건정재정, 정부예산 감액경

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5년 국가예산으로 2,533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

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1년간 25년도 국가예산 중점사업을 발빠르게 선정해 연초부터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중앙부처와 건립히 소통해왔으며, 특히 지역구 박희승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회 예산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211억원) △송천지구 배수개선사업(9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82억원) △죽산 자연재해위험개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57억원) 등도 대거 확보돼 군은 이번 예산을 통해 주요 계속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올해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으로 26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돼 총 1,201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118억원) △농촌협약사업(384억원) △장계면 소재지권 LPG배관망 구축사업(127억원) 등으로 장수군의 무한한 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했다. 장수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비 확보와 다양한 신규 사업

점사업을 발빠르게 선정해 연초부터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중앙부처와 건립히 소통해왔으며, 특히 지역구 박희승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국회 예산심의와 현안사업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211억원) △송천지구 배수개선사업(9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82억원) △죽산 자연재해위험개

활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반영해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국가예산 신규사업 탄력

## 2025년도 신규사업 총사업비 1036억원 확보

진안군(군수 전준성(사진))은 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036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60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건축재정과 예결위 감액안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진안군은 올해 초부터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준성 군수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 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 이번 성과를 거뒀다.

주요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미평 국민체육센터 건립(59억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34.7억원), △산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100억원), △학원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171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58억원) 등으로 사업들은 202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준성 군수는 "군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에도 진안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이 내년 초에 예상되는 만큼 미반영된 국가 예산이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쳐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뽕뽕놀이축제' 체험 행사 풍성

## 2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공휴일 진행

무주뽕뽕놀이축제가 지난 28일 막을 올렸다. 오는 2월 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개최 예정으로 다양한 놀이와 이벤트, 먹거리 체험이 준비돼 있다.

무주군 주최, 새마을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논바다 위에서 즐기는 '얼음 썰매(5천 원)'와 '강릉가차(3천 원) 타기'부터 '빙어 잡기(5천 원)' 체험이 기다린다. 추위와 허기로 지칠 땐 '군밤·떡갈기 체험(3천 원)'과 '추억의 뽕튀기·쌀강정 만들기 체험(1만 원)'이 제격. '뽕튀기'를 비롯한 '어린이 줄타기', '얼음판 팽이치기' 등은 무료로 체험이 가능하다.

주말 단체예약 방문객들에게는 '누가 누가 잘하나 레크레이션 페스티벌(이벤트 체험)'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병수 초리마을 이장은 "올해로 8회째로 초리마을이 무대고 주민들이 동참해 준비해서 진행하는 순수마을 축제"라며 "인심 후한 시골의 정서 속에서 아이들과 특별한 겨울 추억을 쌓고 싶으시다면 휴일마다 무주 초리마을로 오시라"고 전했다. 무주뽕뽕놀이축제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떡갈(6천 원)과 국수(5천 원), 김치전(5천 원) 등 향토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멘토단 해단식 가저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7일 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진안군 2024년 멘토단 해단식을 가졌다.

진안군 멘토단은 산촌·농업·감동관리 분야의 전문 멘토 3명과 읍·면 단위의 지역 멘토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진안군으로 이주 예정이거나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힘써왔다.

특히 귀농 준비 및 농업 정보, 농촌 문화 등 귀농귀촌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귀농귀촌인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 수 있도록 활동했다.

멘토단은 86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800여 회의 대면 상담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에 앞장섰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안정적 정착을 도왔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한 해 동안 활동하며 느꼈던 소회를 공유해보며 멘토단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하반기 공무원 이·퇴임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 27일 군민회관에서 2024년 하반기 공무원 이·퇴임식을 가졌다. 이·퇴임식에는 구선서 농산업 건설국장, 조용호 장수읍장, 김홍열 민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최길환 산서면장 5명의 이·퇴임 공무원과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가족·친지, 후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퇴임자 공직 소개와 공로패 수여, 이·퇴임 소감, 군수 축사, 군의회장 축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가족·친지, 후배 공무원 등은 오랜 기간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는 이들을 축하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위한 사전 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27일 군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준수 사항에 대한 실무 위주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 223명과 가족 초청을 희망한 관내 결혼이민자 및 그 배우자 140여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참석자들에게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비롯해 고용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와 농가가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진안군은 오는 2025년 1월 19일 MOU 체결국인 필리핀 마갈레스시, 이사벨라주, 퀴리노주를 직접 방문하여 1차 모집된 계절근로자 신청자에 대해 섹션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 최종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선발된 근로자들이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